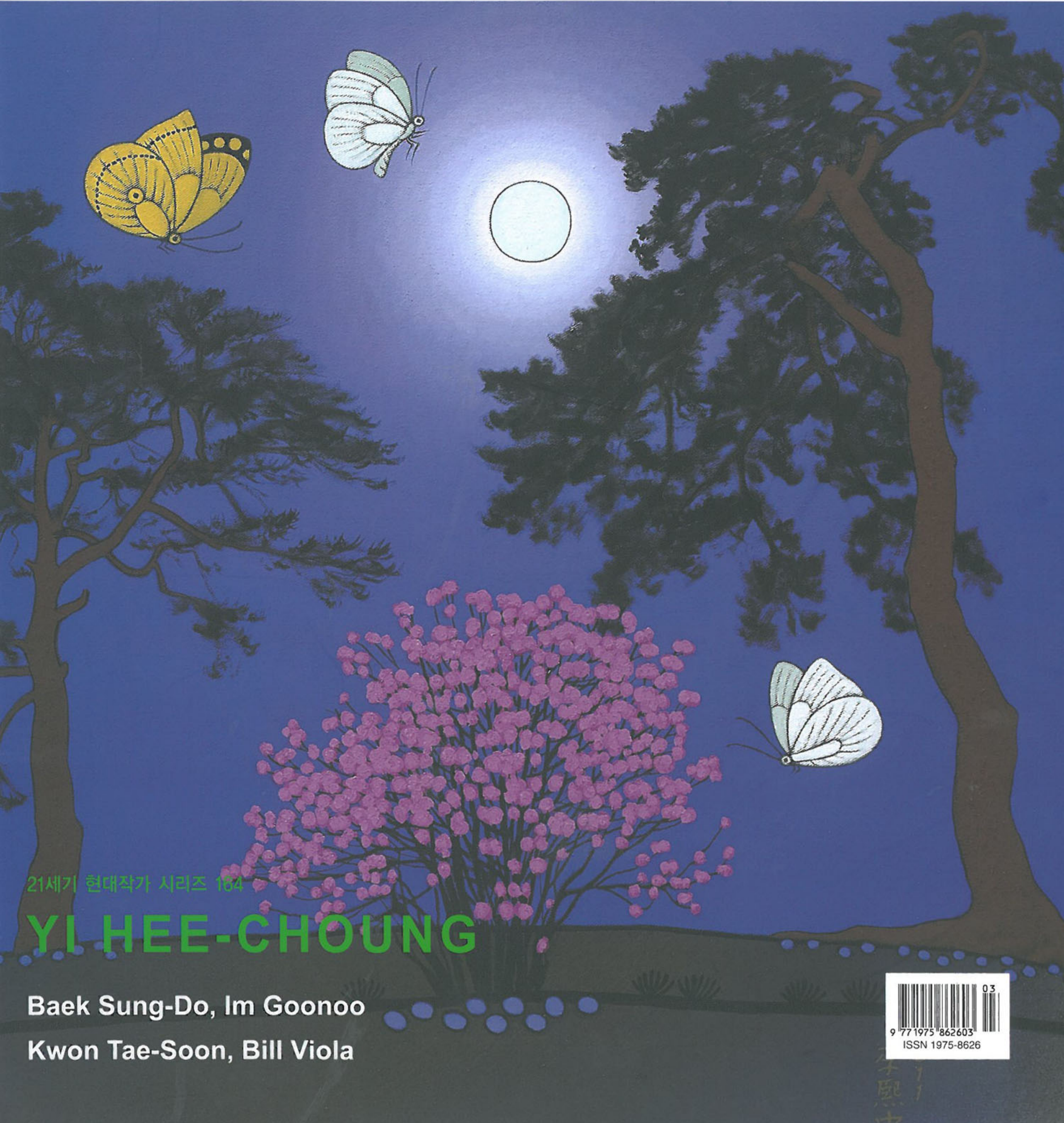


# 미술시대

MISOOLSIDAE

3/4

2015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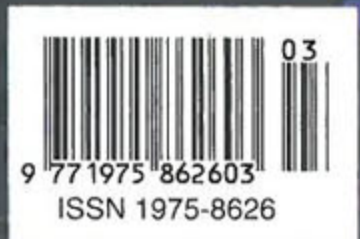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84

## YI HEE-CHOUNG

Baek Sung-Do, Im Goon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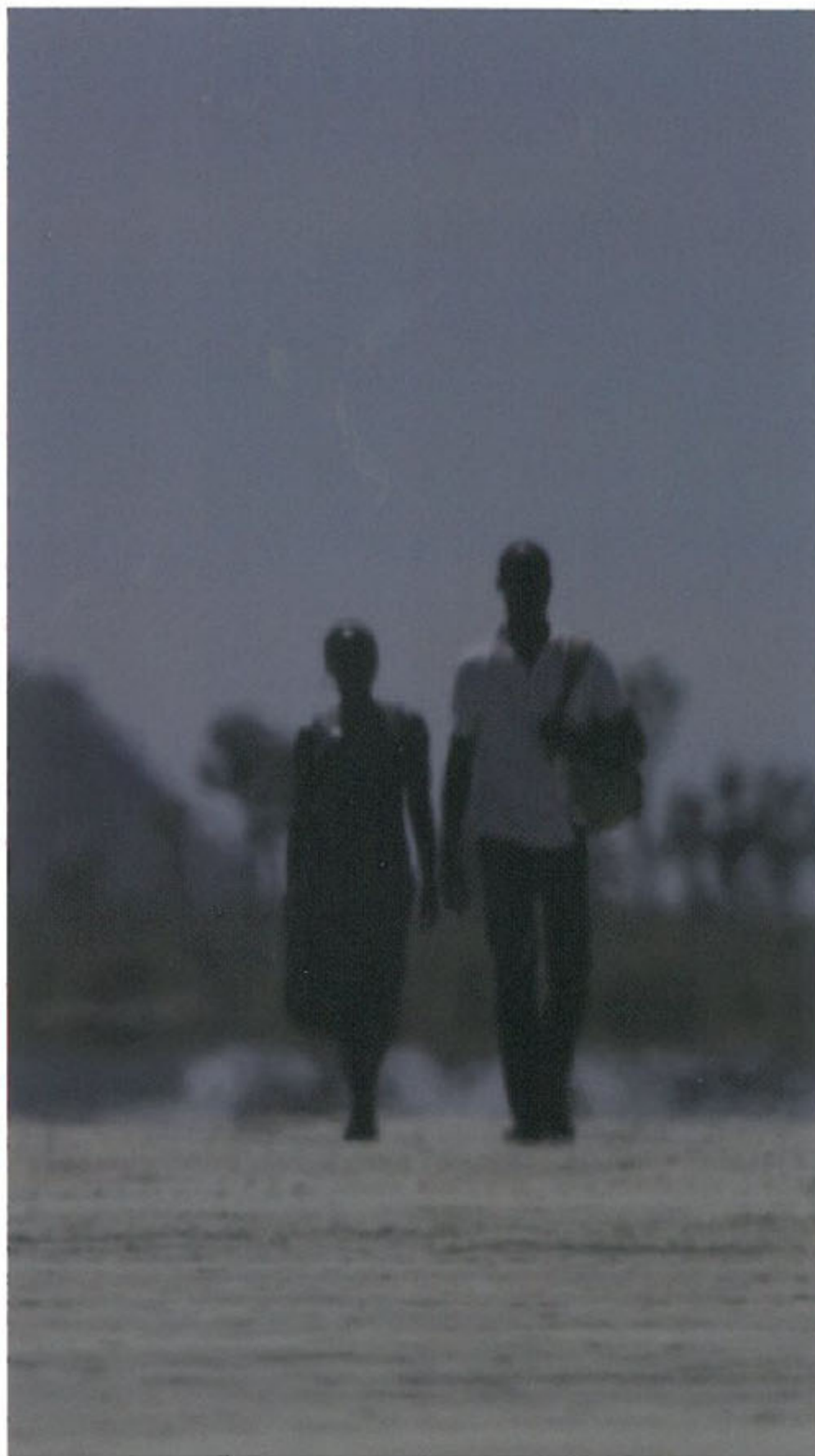
Kwon Tae-Soon, Bill Viola



## 빌 비올라전

2015. 3. 5 - 5. 3 국제갤러리 2, 3관

빌 비올라는 40여년에 걸친 작품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에 관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해 왔으며, 그 중 영상이라는 매체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시간을 기반으로 한 예술, 곧 비디오 및 뉴미디어의 진화를 아우르며 영상이미지의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근본성에 대한 성찰과 이에 비롯된 경험을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문의: 02-735-8449)



국제갤러리는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의 거장 빌 비올라의 신작들을 선보이는 대규모의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2008년 및 2003년에 이은 세 번째 개인전으로서 비올라가 최근 2년간 작업한 일곱 개의 주요 영상 작품과 새롭게 소개되는 이전의 주요 작품을 선별, 국제갤러리 2관 및 3관에 선보일 예정이다.

빌 비올라는 40여년에 걸친 작품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에 관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해 왔으며, 그 중 영상이라는 매체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시간을 기반으로 한 예술, 곧 비디오 및 뉴미디어

◀ Inverted Birth · Video/sound installation · Color High-Definition video projection on screen mounted vertically on wall in dark room · Projected image size: 16 ft 5 in x 9 ft 3 in (5x2.81m); room dimensions variable · 8:22 minutes · Performer: Norman Scott · 2014

▶ Ancestors · Color High-Definition video on plasma display mounted vertically on wall · 61 1/4 x 36 3/8 x 5 in (155.5x92.5x12.7cm) · 21:41 minutes · Performers: Kwesi Dei, Sharon Ferguson · 2012

"...오랜 기간에 걸친 영상 작업을 통해, 시간은 내게 가장 명백한 물질로써 인식되었고, 이는 내가 아는 가장 현실적인 물질이 되었다."

- 빌 비올라

의 진화를 아우르며 영상이미지의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근본성에 대한 성찰과 이에 비롯된 경험을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The Encounter · Color High-Definition video on plasma display mounted on wall · 36 3/8 x 61 1/4 x 5 in (92.5x155.5x12.7cm) · 19:19 minutes · Performers: Genevieve Anderson, Joan Chodorow · 2012

지난해 파리 그랑팔레에서 개최된 빌 비올라의 대규모의 회고전 큐레이터 제롬 뉘트레스(Jérôme Neutres)는 “빌 비올라는 지난 40년간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통해 심도 깊은 작품세계를 고찰해왔다.” 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은 비올라의 영상 작품에 지속적인 밑거름이 되어왔고, 작가는 시간의 잠재적 특성을 이용하여 관람객에게 보고 듣는 행위를 통해 순간에 대한 인식을 유도한다. K3 전시장에 설치된 대규모 영상작품 〈Inverted Birth〉(2014)는 한 남성이 위에서 퍼붓는 물인지 비인지 모를 액체에 흠뻑 젖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무위의 탄생의 순간을 직면하도록 한다.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재하는 액체의 색채와 농도가 점차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상 속 주인공은 내면의 변화를 인지하여 관람객은 이를 목도하게 된다.

빌 비올라는 1951년 뉴욕에서 태어나 시라큐스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미국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997년 미국 휘트니미술관의 〈빌 비올라: 25년간의 연구〉, 2003년 미국 폴 게티미술관의 〈욕망〉, 2006년 일본 모리미술관의 〈첫 번째 꿈〉, 2008년 팔라쵸 델 에스포시치오니와 2014년 파리 그랑팔레에서의 회고전등 국제

적인 유수의 기관 전시이력이 있다.

그의 작품 활동은 변형이라는 주제에 대한 가치의 궤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올라는 테크놀로지, 미술, 철학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으며, 데이비드 튜더와 백남준 같은 전위적인 작가들을 배출해낸 플럭서스 세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비올

라는 초창기 시절부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의식의 흐름이라는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특히 비디오를 장르이자 매체에 따른 동시대 예술언어 및 미술사적 주제를 연구하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구축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